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미 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미 진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의 5학년 아동(남아 85명, 여아 91명)과 6학년 아동(남아 133명, 여아 111명)으로 총 420명이었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 보완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아동의 통제소재는 민하영(1998)이 제작한 내외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의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1977)를 신은영(1998)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외통제소재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집단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 중에서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공격적 대처행동은 남아

가 많이 사용하였으며,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여아가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통제소재 중 외적 통제집단에 속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외적 통제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아동의 우울 수준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라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의 우울 수준이 가장 낮았고,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다.

다섯째,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라 우울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적 통제집단에 속한 아동의 우울 수준이 내적 통제집단에 속한 아동의 우울 수준보다 높았다.

여섯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통제소재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의 우울은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제소재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일곱째, 아동의 우울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통제소재, 공격적 대처행동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우울 수준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가장 설명력이 크며, 외적 통제소재와 공격적 대처행동 순으로 우울을 잘 설명했다.

아동 우울의 대부분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본 연구는 아동을 잘 이해하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우울	5
1) 우울의 개념과 이론	5
2) 아동의 우울	8
2. 스트레스 대처행동	12
1) 스트레스의 개념	12
2)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개념	14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17
3. 통제소재	21
1) 통제소재의 개념	21
2) 통제소재의 발달과 관련 변인	24
4. 대처행동 및 통제소재와 우울의 관계	26
III. 연구 방법	29
1. 연구 대상	29
2. 측정 도구	29
3. 자료 분석	32

IV. 연구 결과	33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33
2. 아동의 통제소재	35
3. 아동의 우울 수준	37
4.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38
5.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39
6.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상관관계	40
7. 대처행동과 통제소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41
V. 논 의	4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1. <표Ⅲ-1> 조사 대상 아동의 특징	29
2. <표Ⅲ-2>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30
3. <표Ⅲ-3> 통제소재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31
4. <표Ⅳ-1>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33
5. <표Ⅳ-2>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공격적 대처행동의 이원변량 분석결과	34
6. <표Ⅳ-3>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의 이원 변량분석결과	34
7. <표Ⅳ-4>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내외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35
8. <표Ⅳ-5>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외적통제집단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36
9. <표Ⅳ-6>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내적통제집단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36
10. <표Ⅳ-7>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울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37

11. <표Ⅳ-8>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울 수준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37
12. <표Ⅳ-9>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38
13. <표Ⅳ-10> 내외 통제집단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39
14. <표Ⅳ-11>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상관관계 ...	40
15. <표Ⅳ-12> 대처행동과 통제소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42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의 아동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복잡하고 다양하게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성인들에게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왔었던 우울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울은 가벼운 정도의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이다 (최윤희, 2003). 미국 성인의 경우 5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 유병률이 5.4~5.9%라는 역학조사와 같이 우울증은 발생률이 높고 흔히 진단되기 때문에 다른 정신장애 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의 우울은 연속적인 장애로서,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적 손상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Kardin et al., 1986)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및 극심한 무력증, 피로감, 권태감의 증상을 나타내고 가출이나 자살, 비행 등과 같은 문제 행동, 부적응 행동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우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우울은 주로 스트레스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으로서 많이 연구가 되었다 (김정희, 1987; 박경순, 1999; 양정윤, 1999; 정애현, 2001; Hammen, Marks, Mayol & Demayo, 1985; Kuiper, Olinger & Martin, 1988). 스트레스는 아

동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트레스와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으며(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우울과 스트레스간의 관계가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었다(Robinson, Garber & Hilsman, 1995). Dubow와 Tisak(1989)에 의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영향력은 대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지는 것 같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스트레스 경험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개인의 사회, 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이 있다(박희석, 손정락, 오상우, 1993; Carson, Swanson, Cooney, Gillum & Cunningham, 1992; Compas et al., 1988b; 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Folkman & Lazarus; 민하영, 1999에서 재인용)고 보고하였다. 즉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 반응은 개인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인지적, 언어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주어지는 압력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대처능력도 미숙하여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압박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심각한 부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민하영, 1999).

스트레스만으로는 우울을 잘 예측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특성으로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통제소재는 성격특성의 하나로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나타나는 일반적 통제 기대이며, 상황 간 안정도나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일반적 동기로 기능하고 있다. 통제소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토대로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 믿음도 포함한다(민하영, 1999). Johnson과 Sarason(1978)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사건들에 대해 통제력을 갖는지(내적통제소재) 혹은 통제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외적통제소재)으로 지각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이 극히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외적통제소재자들은 내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더욱 우울하고, 긴장,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 그리고 전반적인 정서장애 등을 보여 심리적인 문제에 더욱 취약성을 나타낸다(Cole & Sapp, 1988; Johnson & Sarason, 1978)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 우울의 대부분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그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인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과 아동이 지각하는 통제소재가 우울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울 수준을 통해 효율적인 대처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본다. 이로써 아동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생활태도와 심리적 적응 수준 향상을 위해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놀이 문화를 형성하고 아동을 위한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통제 소재 및 우울은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아동의 통제 소재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통제 소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우울

1) 우울의 개념과 이론

우울이란 용어는 B.C 400여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우울한 감정상태를 ‘melancholia’라고 명명함으로써 처음 사용된 이후로, Bleuler(1930)가 우울에는 우울한 감정상태, 정신운동지연 및 의지의 억압이 기본 요소로 포함된다고 하면서 ‘melancholia’와의 동의어로서 ‘depress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우울의 범위는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침체된 상태를 포함한 단순한 슬픔에서부터 상실감, 소외감, 부정적, 자아감, 현실에의 부적응, 환상, 죽음, 자살에 대한 충동에 이르기까지 넓으며, 일상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에서부터 정도가 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만성적이고 정신적인 질병 상태를 모두 포함해서 말할 수 있다. 이상과 정상은 하나의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양자를 확실하게 구분 짓기 어렵듯이, 정상 우울 증상과 임상적 우울 증상도 명백하게 구분 짓기 어려우며, 단지 정상 우울 증상은 임상적 우울 증상보다 양적으로 그 심각성이 적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우울증에 대한 원인은 Freud의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을 기초로 하여 설명되었다. Freud에 의하면 우울을 일으키는 잠재성은 구강기에 이미

형성된다고 한다. 구강기에 고착된 사람은 이후의 심리성적 발달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구강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며,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격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존적인 사람이 애정의 대상을 상실하면 이 대상에게 가지고 있던 양가감정과 죄의식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우울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은 Freud의 정신 역동적 모델을 지지하였으나, 정신 역동적 모델에서는 인지적 과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Beck의 연구 이후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인지적 접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법은 경험적 연구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심리적 연구를 산출했다. 우울증에 관한 이러한 인지적 접근법들 중 오늘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Beck(1967)의 인지 이론과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력감 이론이다(이용남, 1999). 이 이론들에서는 우울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엄격하고, 부정적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따라서 부정적으로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Beck(1976)은 왜곡된 사고의 과정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즉 우울한 사람은 고정적이고 부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자기이론 즉 부정적인 자기도식(negative self-schema)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자기도식은 자신을 이해하는 틀이며 사회적인 경험에 포함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Marcus, 1977).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 도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 기대를 하는데, 이것은 Beck의 부정적 3요소(negative triad)라고 하는 자기 자신 및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관점을 유지한다. 우울한 사람은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낮은 자존심을 경험하며, 그 결과로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불쾌한 사건들이 불가피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또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부모의 상실이나 친구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우호적 환경에 민감하다. 이런 의미에서 Pietromonaco와 Marcus(1985)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보에 민감한 반면,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 정보에 민감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eck(1976)은 우울한 사람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며,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적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갖는데 이러한 부정적 자기 평가의 신념들이 모든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우울증에 대한 Seligman(1975)의 견해는 인간에 있어서 우울증은 자신이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지각함에 따라 유발된다고 보았다. Seligman의 동물 연구에서 증명된 학습된 무기력감 이론에 따르면, 반응과 강화가 독립되어 있는 상황에 개인을 노출시키면 점차 그는 강화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결과에 대하여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새로운 상황에서도 반응하려는 동기가 적어지고, 이러한 것은 새로운 상황에서의 수행을 간접하게 되며, 불안을 일으키고 우울을 일으키게 된다.

우울을 학습된 무력감 상태로 보는 견해는 사회 학습이론에서 말하는 외적통제 상태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이 이론 모두 우울감은 사회적인 강화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Seligman의 연구는 동물을 상대로 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험자가 나타내는 무력증상이 일부 우울증 환자들이 나타내는 증상과 유사하다고 함으로써 무력감 이론을 우울증을 설명하는 유용한 모델로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습된

무력감 이론은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기대만으로 우울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고, 우울한 사람이 실패에 대해서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됨에 따라, Abramson 등(1978)은 원래의 이론을 수정하여 귀인 이론에 따른 새로운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된 모델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학습된 무기력은 동물의 경우와는 다른 조망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실패에 대한 내적(internal), 전반적(global), 안정적(stable) 귀인이 우울의 선행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즉 통제 불가능성이 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때 우울해 진다는 것이다(정애현, 2001).

한편, 정보 처리적인 입장에서는 우울한 사람이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함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Ingram, Smith와 Brehm(1983)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참조적 과제가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자기 도식을 처리하는 반면,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인 도식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귀결되는 하나의 가정은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과 달리 부적응적인(maladaptive) 인지 도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아동의 우울

오랫동안 아동기 우울의 존재 여부는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아동은 우울증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성숙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사춘기 이전에는 명백한 조울증이 희귀하다는 주장(Rie, 1966)이 제

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동 우울의 정의와 분류, 평가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아동에게도 우울과 유사한 뚜렷한 증후군이 실재한다는 입장에 대해 점차 동의를 하게 되었다(Kovacs, 1981).

아동기 우울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Rene Spitz(1946)의 의존성 우울(anacitic depression)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어머니와 격리되면서 위축되고 주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6개월 된 유아를 기술했면서 아동의 우울증이 성인 우울증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한유진, 1993). 또한 Cantwell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아동에게서도 성인의 우울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상들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여 아동이 겪는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

아동기 우울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아동기 우울을 공식 인정한 DSM-III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3rd ed)에서는 우울증의 필수 증상은 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 모두 같지만 부수적인 증상은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은 분리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매달림, 학교 공포나 자신 또는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반면에 청소년기에는 반사회적 행동, 가출,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 안절부절, 불평불만, 공격성 등을 보일 수 있으며, 가족의 일에 무관심하고 협조적이지 않거나, 사회활동의 철회, 학업부진, 외모에 무관심하고 거절에 민감하거나 약물 남용의 병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오귀화, 2002, 재인용).

아동기 우울은 성인 우울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특징이 성인 우울증과는 달리, 명확한 우울감이나 생리적 증상보다 다른 형태로 위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Toolan(1962)과 Glaser(1967)는 성인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주요 특징이 아동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나, 아동기에는 짜증, 과다활동, 공격적 행동, 무단결석, 친구관계 악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전혀 우울하게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가면 우울증(masked depression)이라고 명명하였다(Cytryn & Mcknew, 1972; Malmquist, 1977).

아동기 우울증을 진단해야 할 경우를 보면, 우울증은 여러 다른 장애와 복잡하게 얽혀 공병(comorbidity)율이 높으며(Hammen & Compas, 1994), 우울한 아동의 약 70%가 불안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느 정도의 불안 증상을 실제로 호소하고 있다(Anderson, 1987; Brady & Kendall, 1992; Kovacs, 1990). 또 우울증은 품행장애와 주의력 결핍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게서 흔히 발견된다(Fleming & Offord, 1990; Kashani, 1987; Rohde, Lewinsohn & Seeley, 1991). 아동기 우울증의 유병률은 나이, 지역, 표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 미만으로 발생하며(Kashani & Carlson, 1987), 학령기 아동에게서는 2~3% 정도로 발생한다(Cohen, 1993; Costell, 1988). 청소년의 경우는 우울증의 유병률이 성인의 경우와 비슷하며 여학생의 유병률(7~13%)이 더 높다(Angold & Rutter, 1992).

아동기에 우울증이 표현되는 양상으로는 공상, 언어화와 감정의 표현 그리고 행동화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공상은 주로 비난, 불만, 상실, 학대, 유기, 죽음, 자살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이 많고, 언어적 표현은 절망, 무기력감,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사랑 받지 못함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의 표현과 행동화는 주로 자세나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슬픔의 표현, 우는 행동, 식욕 부진 및 수면의 문제, 정신 운동 지체 그리고 과잉 활동이나 공격성 등의 다양한 문제 행동을 포함하게 된다(김은정·오경자, 1992). 8~12세 아동기의 우울증을 살펴 본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는 일종의 전환기로, 학령 전기 또는 학령기의 시기가 되면 인지 및 언어 능력이 발달하며, 상징적 놀이(symbolic play)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인지적인 요소가 전혀 동반되지 않은 불행감이나 슬픔,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McConvill, Boag & Puromit, 1973; Bierman, Silverstein & Finesinger, 1958). 그러나 후반기에는 점차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특징적인 죄책감, 자기 비하, 자아 존중감의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Cytrn & Macknew, 1990; Kashani, Rosenberg & Reid, 1989; Lefkowitz, 1985; Glasberg & Abou d, 1981). 이상과 같이 연령에 따른 우울 증상의 표현 양상의 변화는 주로 나이 및 발달 단계에 따른 인지 능력, 언어적 표현 능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각 능력의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다.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7~11세의 중기 아동기는 자기를 평가하는데 하나 이상의 관점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약점을 더욱 과장되게 지각하고,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기 시작한다(Leahy & Huard, 1976). 한편 정서조절 책략의 발달 면에서 우울증을 연구한 Cole과 Kaslow(1988)에 의하면, 6~12세의 아동 중기에는 내적 경험에 대해 숙고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이에 따라 자기 탐사, 자기 평가 및 자기 강화가 가능해져서 정서조절 능력이 증진된다고 한다. 즉 이 시기에는 정서 조절의 측면에 있어서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개인 내적인 조절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김은정 외, 1992, 재인용).

이와 같이, 아동기 우울증은 단순히 발달 과정 중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며, 어떤 아동들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심리 장애의 예방 및 조기 치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기의 우울증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스트레스 대처 행동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Selye의 ‘The Stress of Life(1956)’가 발표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로 인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도 다양하여, 일치된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을 토대로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Selye(1984)에 의해 제시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생리적, 의학적 입장으로서, 스트레스를 환경적인 자극이나 요구로 인해 신체적, 생리적, 감정적 또는 행동적 평형 상태가 붕괴되거나 변화되었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반응으로 정의한다. 즉 개인의 생활사건에 따른 개인의 생리적 반응의 정도(예, 혈압, 맥박 수 등)가 곧 스트레스의 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반응으로 정의하는 것의 한계는 개인의 신체 기능 변화가 일정

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어 그 요인을 구별하기 어렵다(정동화, 2002).

둘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즉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연재해, 해로운 조건, 질병, 해고, 상실 등과 같은 환경 속의 사건에 중점을 둔다(박경순, 1999). 그러나 생활 사건이 유발하는 객관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인해, 각 생활 사건마다 지각하는 주관적인 스트레스 수준 평가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동일한 생활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차별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민하영, 1999).

셋째,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특정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과정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트레스 여부는 스트레스라 일반적으로 분류되어지는 객관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 인지적 평가,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과 같은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스트레스 사건을 스스로 평가했을 때 자신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면 그 사건은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송의열, 1995). 스트레스를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각은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동일한 특정 사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 차이에 의해 스트레스를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단순히 자극

과 반응의 관계로 접근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런 단순화된 모델에 반하여,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로운 효과를 중재하는 대처변인과 적응변인을 포함하여 스트레스를 재정의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지각되는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개념

스트레스 사건들과 신체건강, 심리적 증상 같은 적응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 관계가 스트레스 대처과정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인의 적응은 스트레스 경험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설명된다고 한다(Bolger & Zuckerman, 1995; Ebata & Moos, 1991; Sorensen, 1993). Jounard(1975)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그 대처방식에 따라 성장의 촉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갈등과 좌절의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적응적 결과에 차이를 주는 것은 스트레스 개념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임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범위를 반사적 행동까지 포함시키느냐 또는 의식적 행동

으로 제한하느냐에 따라 개념은 달라진다. 대처방식이란 직접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행하는 모든 반응을 포함한다(Silver & Wortman, 1980)라는 정의를 따르면, 대처에는 부적 자극에 대한 학습된 반응뿐 아니라 위협에 대한 본능적이거나 반사적인 반응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능적, 반사적 행동까지 대처행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환경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모든 행동을 대처행동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대처행동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처행동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대처행동의 범위를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행동측면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민하영, 1999). 이에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행동을 정의하는데 의도적 반응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면서, 대처행동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내, 외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라 하였다. Lazarus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현상학적 이론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작용과 함께 특히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처행동의 범위를 의식적인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처행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측정하는데 효용성을 갖게 한다.

전통적으로 대처는 방어 혹은 자아과정의 관점, 성격특성의 관점, 상황 지향적 관점으로 개념화되어 왔다(Lazarus & Folkman, 1980).

첫째, 방어 혹은 자아과정의 관점은 자아 분석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진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대처행동은 자아 방어적 과정이며, 그 기능은 긴장 완화에 있다고 보았다(Hann, 1977). 즉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긴장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을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 보았다. 이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긴장 감소에 초점을 둔 것으로, 대처에 있어서 정서적 균

형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 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갖는다(Lazarus & Folkman, 1980).

둘째, 대처를 성격 또는 기질적 특성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을 스트레스의 대응 효과로 보았다(Eysenck, 1983; Holahan & Moos, 1986). 개인의 성격 특성이 스트레스의 대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대처행동이 직면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안정된 성향을 지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도전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상황에서 A Type 행동 유형을 보이는 사람과 B Type 행동 유형을 보이는 사람간의 생리적 반응 차이를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관점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의해 결정된 대처행동으로는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대처행동 반응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적 맥락, 사회적 지지체계 등 환경적인 요인을 간과함으로써 대처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셋째, 상황 지향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취하는 대처과정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적 행동으로 본다. 그래서 상황론자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상황이 아닌 특수한 위기 상황(예: 수술, 암, 척추장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다(Lazarus & Cohen, 1977). 그러나 이 관점 역시 특정한 상황에서 소규모 집단이 사용하는 대처행동만을 연구함으로써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 스트레스 상황 간 대처행동의 일관성이 있다는 점, 개인의 특성이 대처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송달호, 2002, 재인용).

대처에 관한 3가지 전통적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Lazarus와 Folkman(1984)은 상호 거래적 대처모델을 제시하였다. 상호 거래적 대처모델에서는 대처행동을 한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적 혹은 외적 요구

를 다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대처를 ‘스트레스를 다루어 가려는 노력’으로 보았다. 즉 대처노력은 당면한 사건의 인지적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이 반응에 의해서 상황이 변하거나 상황에 대한 느낌이 변하여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바뀐다면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 다시 이에 대한 대처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선주, 1995).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효용성과 무관하게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모든 목적적 시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비단 성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아동의 스트레스는 심리적이거나 정서적 적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양의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각자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대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진다(Dubow & Tisak, 1989).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 그 자체보다는 직면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처행동은 기능에 따라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0)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처행동 연구에서, 대처행동을 크게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과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문제 중심

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원인을 직접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해결하려는 것으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 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문제로부터 거리두기, 자기비난, 공상하기 등을 말한다.

대처행동의 기능에 초점을 둔 Lazarus와 Folkman의 구분과 달리 Roth와 Cohen(1986)은 대처행동의 방법에 따라 대처행동을 접근적 전략과 회피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접근적 전략은 정보 수집이나 사회적지지 추구 등을 통해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회피적 전략은 스트레스 사건을 회피 또는 무시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전략이다. 이와 유사하게 Ebata와 Moos(1991)도 대처행동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이 각각 포함된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으로 분류하였다(민하영, 1999). 접근적 대처행동은 문제에 직접 관련된 반응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적극적인 인지적 노력과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트레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행동적 노력이 포함된다. 회피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거나 현재의 상황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등의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분법적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연구 되었다. 그러나, Band와 Weisz(1984)에 의하면 Lazarus와 Folkman의 이원화된 분류체계를 아동에게 적용하였을 때, 아동이 보인 대처행동의 40% 정도가 분류 불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Band와 Weisz(1984)는 아동의 대처행동을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회피하

거나 바꾸려는 형태인 1차적 통제 대처행동(primary control coping)과 개인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려는 2차적 통제 대처행동(secondary control coping), 그리고 처벌을 줄이거나 감정을 고양시키려는 명백한 노력이나 목적 지향적 행동이 없는 철회 대처행동(relinquished control coping)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Causey와 Dubow(1992)는 Roth와 Cohen(1986)의 접근과 회피적 대처행동을 이용하여 아동의 대처행동을 범주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Roth와 Cohen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지만 아동의 대처행동 가운데 일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접근 대 회피적 차원 차원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대처행동으로 아동의 대처행동을 규명하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며, 이차원적인 분류보다는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인 발달 측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분류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최근 Ayers(1991)은 9세에서 12세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적극적 대처행동, 주의 전환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적극적 대처행동은 문제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둘째, 주의 전환적 대처행동은 관심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자극을 이용해 문제 상황에서 이탈하려는 것이며, 셋째, 회피적 대처행동은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문제 해결적, 정서적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Ayers의 4차원적 분류는 기존 Lazarus와 Folkman(1980)의 문제 중심적 대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 범주 및 Ebata와 Moos(1991)의 접근 대 회피적 대처행동 범주에 비해 아동의 대처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Ayers et al., 1996).

아동의 대처행동을 성인과 다른 시각과 범주로 접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동의 대처행동과 성인의 대처행동은 기능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민하영, 1999).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등 모든 면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스트레스 유형은 물론 대처행동도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아동은 성인보다 대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낮은 통제감을 지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Kliewer, 1991; Sorensen, 1993). 그로인해 아동은 소극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많이 보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동의 소극적이고 정서적인 대처행동이 성인과 같이 부정적인 적응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속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Kliewer(1991)의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동이 사회적 능력이 낮은 아동보다 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인에 비해 아동은 일상생활에 대해 낮은 통제력을 지각하고 있고 또한 Piaget의 도덕성 발달 단계상 권위 있는 환경의 요구에 일반적으로 순응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를 하고(유안진, 1995) 있기 때문에 수용, 복종과 같은 회피적 대처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력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인용 대처행동을 토대로 개발되어진 이원적 대처행동의 분류체계로 적응적이라고 여겨지는 대처행동과 상반된 대처행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정애현,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대처행동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아동이 환경적 맥락 중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보이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박진아, 2001, 재인용).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의 대처행동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4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했다. 4가지 하위 유형은 첫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인 적극적 대처행동, 둘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위한 인지 행동적 반응인 공격적 대처행동, 셋째, 문제로부터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거나 조절하고, 문제를 유보, 부정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넷째, 문제 해결이나 정서 위안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인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정의한다.

3. 통제소재

1) 통제소재의 개념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개인의 특성 중에서도 성격 특성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성격 특성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나타나는 통제소재는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임이 증명되었다.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는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강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으로, Rotter(1954)의 사회 학습 이론이 대두되면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Rotter(1966)에 의하면, 자신의 행동 후에 수반되는 강화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연이나 운명이 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강화를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보고, 다른 경우에는 우연이나 다른 사람의 힘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람마다 강화에 대한 지각의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행동에 수반되는 강화의 원인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다르며, 이런 지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Rotter는 이런 지각 또는 신념을 내외 통제성이라 불렀다. 즉, 개인이 자신에 일어나는 사건을 스스로 예측,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자기 내부 요인으로 지각하면 내적통제를 한다고 보고 '내적통제소재자'라고 하는 반면,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스스로 예측,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면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행운, 운명, 타인의 압력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지각하면 외적통제를 한다고 보고 '외적통제소재자'라고 한다. 이런 통제소재는 외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에 내적통제소재와 외적통제소재를 둔 일직선적인 연속선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정된 어느 한 점 위에 놓이며 변화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내외 통제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J. B. Rotter(1966)의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F. Heider(1958)의 귀인 이론(Attribution)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Rotter의 사회 학습이론은 강화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임상 연구에 적용시키고 있고, Heider의 귀인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나온 개념을 사회 심리학에 적용한다. 이 두 이론의 근원은 다르지만, 인간에게 실제로 작용하거나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개인적 특성이나 외적 환경 요인 그 자체 보다는 인간이 지각한 행동의 원인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 학습이론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지각하는가 또는 외적 요인으로

지각하는가 하는 통제소재를 중요시하는데 반해, 귀인 이론에서는 결과의 원인으로 지각한 요인이 안정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안정성이 없는 것인지 하는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는데 차이가 있다(Weiner, 1976; 박경민, 1995에서 재인용).

내외 통제소재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Strickland, 1995; Nowicki & Strickland, 1973; Gore & Rotter, 1963)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내외 통제소재는 학업성취, 대인관계, 정서적 적응 등 개인의 여러 행동영역에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내적통제소재자는 외적통제소재자에 비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고(백양희 · 최외선, 1997), 내적통제소재자는 외적통제소재자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높고(Shybut, 1970; 박석기, 1984), 내적통제소재일수록 높은 성취 동기를 갖는다는 많은 연구 결과도 있다(Bar-Tal & Bar-Zohar, 1977). 또한 Butterfield(1964)는 외적통제소재자일수록 더 자기 비난적이며 좌절 상황에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김철수(1974)는 외적통제소재자일수록 더 불안하며, 내적통제소재자들은 외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해 성취 동기가 강하고, 학과 외의 사회 활동 집단에 적극적인 태도로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내적통제소재자들의 행동 특성은 외적통제소재자들의 행동 특성에 비해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적통제소재자들은 문제 해결과 과제수행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갖지만, 내적통제소재자들은 높은 자존심과 함께 능동적인 자세와 건설적인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적통제소재자의 높은 일반적 통제감 또는 통제기대가 목적 지향적인 문제 해결을 동기화 시키는 심

리적 성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민하영, 1999).

2) 통제소재의 발달과 관련 변인

내외 통제성이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통제소재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관련 변인으로는 연령과 성별로써, 통제소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에 따른 통제소재의 발달에 대한 견해는 아동기와 성인기에 따라서 다르다. 어린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나 타인의 보호와 양육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결과가 거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생각하나, 점차 성장해 나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외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통제신념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였다(Bialer, 1961; Crandall, 1965). 이처럼 통제신념이 외재적인 것에서 점차 내재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아동의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사건을 범주화 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계 된다고 볼 수 있다(박경민, 1995). 특히, 내외 통제성의 발달은 성인기까지 계속되기는 하나, 대부분의 발달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한다(Crandall, 1965; Roger, 1975).

연령에 따른 내외 통제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선미(1988)는 4,5,6,7,8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외 통제소재 발달을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내외통제소재가 증가하고 특히, 취학 전후로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Sherman(1984)은 8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아동

의 내외 통제성 점수는 종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횡단적으로도 의미 있게 달랐음을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조현주(1981), 이병준(1992) Nowicki와 Strickland(1973), Gnepp와 Chilankurti(1988)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적통제소재에서 내적통제소재로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종영과 이종현(1983), 서선주(1988), 이경남(1997)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령과 내외 통제소재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종식(1974)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외적통제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성인기의 통제소재는 개인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구체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에 따라 통제소재가 변화한다고 하였다(이훈구, 1980). Rotter(1975)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의 통제소재를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15년 동안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외적통제성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1960년대 말의 대대적인 반전데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변화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시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지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성별에 따른 통제소재의 차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내적통제성을 지닌다는 결과(Nowicki & Walker, 1974; Gruen, 1974)와 둘째,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내적통제성을 갖는다는 결과(김영례, 1981; 송태욱, 1984; McGinnies et al., 1974; Parsons, 1970)와 셋째, 성별에 따른 통제소재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김종희, 1983; 이훈구, 1980; 전경미, 1983; Nowicki & Strickland, 1973)와 같이 분류되어 통제소재의 성차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소재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보면, 성별은 통제소재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예를 들면, 내적통제를 하는 남학생은

높은 성취를 보이는 반면 내적통제를 하는 여학생은 높은 사회적 참여를 보이며(Nowicki & Segal, 1974), 내적통제를 하는 남학생은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 반면 내적통제를 하는 여학생은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unningham & Berberian, 1976).

이와 같이 똑같은 통제소재를 보이는 집단이라도 성별에 따라 각기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통제소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제소재의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대처행동 및 통제소재와 우울의 관계

우울은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문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는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obinson, Garber,& Hilsman, 1995). 즉 스트레스만으로는 우울을 잘 예측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관심을 받아온 성격 특성 중의 하나가 개인 통제에 대한 신념이다. 내외 통제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아동의 우울 성향과 내외통제성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경민, 1995). 즉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외적통제성과 관련되고 우울 성향이 낮을수록 내적통제성과 관련되었다. 또한 외적통제소재자들은 내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더욱 우울하고, 긴장,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그리고 전반적인 정서장애 등을 보여 심리적인 문제에 더욱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Cole & Sapp, 1988; Johnson & Sarason, 197

8; 최윤희,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Seligman이 학습된 무력감의 발달의 주원인은 자신이 장래에 일어날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기대, 자신의 행동 결과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며, 이에 따라 우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 설명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Aiken & Baucom(1982)에 의하면 외적통제성과 우울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송위덕(1994)은 외적통제소재자가 우울 성향이 더 높다고 하였고, 서미옥(1996)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외적통제소재자가 더 우울했고, 실패 경험을 한 재수생은 내적통제소재자가 더 우울하다고 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지혜(1981)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외적통제와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됨에 따라 통제소재와 우울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울을 잘 예측해 주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Moos와 Billings(1984)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최근의 단일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측정하였고 그러한 대처는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반복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은 무기력감을 경험하면 수동적인 대처양식이 증가되어 결국은 사기저하와 우울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인향(1997)은 스트레스에 대한 능동적 대처 양식 유형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동적 대처양식 유형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애현, 2001). 또한 박경순(1999)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아동이 수동적인 대처나 신비적 대처를 하는 아동에 비하여 우울 수준이 낮았다고 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내외 통제소재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도 서로

유관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민하영 · 유안진, 1998). 내외 통제소재와 스트레스 관련 연구(Kobas, Maddi, & Kahn, 1982)에서, 내외 통제소재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신체적 질병간의 관계에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내적통제소재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중심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하지만, 외적통제소재자는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려는 억압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liever(1991)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연구와 달리 내적통제 성향을 지닌 아동은 외적통제 성향을 지닌 아동에 비해 회피적 행동 및 인지적 회피행동 등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대처행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소유한 사회적, 인적 자원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사회적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통제감을 지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적응력이 일반적으로 높은 내적통제소재 아동이나 청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이라 여겨지는 정서 중심적인 회피적 대처행동(Compas et al., 1988b)을 외적통제소재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Kliever, 1991)하고 있다(민하영, 1999). 비록 아동과 성인의 내외 통제소재와 대처행동간의 관련성 결과가 방향성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일치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의 5학년 아동 176명(남아 85명, 여아 91명)과 6학년 아동 244명(남아 133명, 여아 111명)으로 총 420명이었다.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3개 학교를 임의 선정 한 후, 5학년과 6학년 4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420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Ⅲ-1> 조사 대상 아동의 특징

		학 년		전 체
		5 학년	6 학년	
성 별	남 아	85	133	218
	여 아	91	111	202
전 체		176	244	420

2. 측정 도구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 보완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 하는 행동을 측정하며 적극적,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5개 하위 유형으로 구분된다. 박진아(2001)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소극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을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여 4개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하위 유형별로 각각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별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각각 1에서 4의 점수를 주었다. 하위 영역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에서 20점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Ⅲ-2>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변 인	문항수	문 항 번 호	신뢰도계수
적극적 대처행동	5	1, 5, 9, 13, 17	.79
공격적 대처행동	5	3, 7, 11, 15, 19	.63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5	2, 6, 10, 14, 18	.47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5	4, 8, 12, 16, 20	.68
전 체	20		.69

2) 통제소재 척도

아동의 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하영(1998)이 제작한 내외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문항 구성은 내적통제소재 10문항, 외적통제소재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채점 방식은 내적통제소재 평가의 경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각각 1에서 4의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외적통제소재 문항의 경우, 각각의 응답에 대하여 역으로 점수를 주었다. 따라서 내외 통제소재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소재 성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Ⅲ-3> 통제소재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 인	문항수	문 항 번 호	신뢰도계수
내적통제소재	10	1, 3, 5, 7, 9, 10, 12, 14, 16, 18	.64
외적통제소재	10	2, 4, 6, 8, 11, 13, 15, 17, 19, 20	.60
전 체	20		.65

3)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척도는 Kovacs의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1977)로 이는 Beck의 우울 척도를 만 8세~13세의 아동에게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것을 신은영(1998)이 25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 질문지에는 우울 정서, 행동 장애, 흥미 상실, 자기 비하, 생리적 증상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별 채점 방식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각각 0에서 2의 점수를 주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9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통제 소재, 대처 행동,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통제 소재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집단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통제 소재 및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통제 소재와 대처 행동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IV-1>과 같다.

<표IV-1>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변인 하위영역	성 별	학 년		전 체
		5학년(n=176) M(SD)	6학년(n=244) M(SD)	
적 극 적 대 처 행 동	남아(n=218)	13.53 (3.74)	14.08 (2.92)	13.86 (3.27)
	여아(n=202)	13.78 (3.12)	13.73 (2.87)	13.75 (2.98)
	전체(n=420)	13.66 (3.43)	13.92 (2.90)	13.81 (3.13)
공 격 적 대 처 행 동	남아(n=218)	11.31 (4.33)	11.77 (3.28)	11.59 (3.72)
	여아(n=202)	10.70 (3.33)	10.58 (3.25)	10.63 (3.28)
	전체(n=420)	10.99 (3.85)	11.23 (3.31)	11.13 (3.54)
소극/회피적 대 처 행 동	남아(n=218)	9.41 (2.48)	10.23 (2.63)	9.91 (2.60)
	여아(n=202)	10.74 (3.09)	10.60 (2.74)	10.66 (2.90)
	전체(n=420)	10.10 (2.88)	10.40 (2.68)	10.27 (2.77)
사 회 지 지 추 구 적 대 처 행 동	남아(n=218)	9.67 (3.41)	9.50 (2.73)	9.56 (3.00)
	여아(n=202)	9.56 (2.51)	9.68 (2.79)	9.62 (2.66)
	전체(n=420)	9.61 (2.97)	9.58 (2.75)	9.59 (2.84)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각 하위 유형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2>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공격적 대처행동의 이원변량분석결과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값
공격적	성별	81.835	1	81.835	6.610*
	학년	2.845	1	2.845	.230
	성별×학년	8.794	1	8.794	.710
대처행동	오차	5149.910	416	12.380	
	전체	57272.000	420		

* $p < .05$

<표IV-3>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의 이원변량분석결과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값
소극/회피적	성별	73.141	1	73.141	9.750*
	학년	12.073	1	12.073	1.609
	성별×학년	23.168	1	23.168	3.088
대처행동	오차	3120.592	416	7.501	
	전체	47547.000	420		

* $p < .05$

<표IV-2>와 <표IV-3>에 의하면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F=6.610$, $p < .05$, $F=9.750$, $p < .05$)가 나타났다. <표IV-1>에 의하면 공격적 대처행동은 남아($M=11.59$, $SD=3.72$)가 여아($M=$

10.63, SD=3.28)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여아(M=10.66, SD=2.90)가 남아(M=9.91, SD=2.60)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의 주효과와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극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통제소재

아동의 통제소재 검사를 통해 아동을 내적통제 집단과 외적통제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되는 점수를 찾았다. 상위 25%에 해당되는 66점 이상을 받은 집단을 내적통제 집단으로, 하위 25%에 해당되는 59점 이하를 받은 집단을 외적통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내적통제 집단과 외적통제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IV-4>와 같다.

<표IV-4>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내외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변인 하위영역	성 별	학 년		전 체
		5학년 M(SD)	6학년 M(SD)	
외적통제집단	남 아	53.83 (5.83)	53.79 (5.51)	53.81 (5.58)
	여 아	56.39 (1.75)	54.88 (3.48)	55.42 (3.04)
	전 체	54.93 (4.69)	54.22 (4.80)	54.47 (4.76)
내적통제집단	남 아	69.92 (3.24)	68.85 (2.56)	69.30 (2.89)
	여 아	69.17 (2.78)	68.84 (2.27)	69.00 (2.51)
	전 체	69.51 (2.99)	68.85 (2.41)	69.14 (2.69)

내적통제 집단과 외적통제 집단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5>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외적통제집단의 이원변량분석결과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값
	성 별	88.687	1	88.687	3.972*
	학 년	16.207	1	16.207	.726
외적통제집단	성별×학년	14.517	1	14.517	.650
	오 차	2635.028	118	22.331	
	전 체	364673.000	122		

* $p < .05$

<표IV-6>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내적통제집단의 이원변량분석결과

하위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값
	성 별	4.074	1	4.074	.561
	학 년	14.170	1	14.170	1.950
내적통제집단	성별×학년	3.972	1	3.972	.547
	오 차	828.432	114	7.267	
	전 체	564995.000	118		

* $p < .05$

<표IV-5>에 의하면 외적통제 집단에 속한 아동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F=3.972$, $p < .05$)를 보였다. 즉 여아($M=55.42$, $SD=3.04$)가 내적통제성을, 남아($M=53.81$, $SD=5.58$)는 좀 더 외적통제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적통제 집단의 학년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내적통제 집단에 속한 아동에게서는 <표IV-6>과 같이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동의 우울 수준

아동 우울 검사(CDI)를 통해 측정된 우울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IV-7>과 같다.

<표IV-7>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울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변인 하위영역	성 별	학 년		전 체
		5학년(n=176) M(SD)	6학년(n=244) M(SD)	
우울 수준	남아(n=218)	11.60 (7.55)	12.80 (8.70)	12.33 (8.27)
	여아(n=202)	11.63 (7.95)	12.26 (8.21)	11.98 (8.08)
	전체(n=420)	11.61 (7.74)	12.55 (8.47)	12.16 (8.17)

아동의 우울 수준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8>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울 수준의 이원변량분석결과

하위영역	변 량 원	자 승 합	자 유 도	평균자승	F 값
우울 수준	성 별	6.605	1	6.605	1.274
	학 년	85.429	1	85.429	.099
	성별×학년	8.044	1	8.044	.120
	오 차	27890.639	416	67.045	
	전 체	90097.000	420		

* $p < .05$

<표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우울 수준에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아동의 우울 수준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으며, 5학년과 6학년 아동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구분하기 위하여, 4가지 하위 유형의 스트레스 대처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하위 유형을 해당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하위 유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대처 유형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9>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적극적 대처 (n=255)	공격적 대처 (n=81)	소극/회피적 대처 (n=32)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n=11)	F
우울 수준	10.67 (7.78) ^{ac}	13.48 (8.28) ^{bc}	18.19 (8.08) ^{abc}	15.91 (7.57)	10.770*

* $p < .05$

주) : 다른 알파벳 철자는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Scheffe 사후 검증 $p < .05$)함

일원변량분석 결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770, p < .05$). 즉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의 우울

수준(M=10.67, SD=7.78)이 가장 낮았으며,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의 우울 수준(M=18.19, SD=8.08)이 가장 높았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p<.05$),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p=.045$)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다른 대처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5.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내적통제 집단과 외적통제 집단에 속한 아동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집단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IV-10> 내외 통제집단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외적통제소재(n=122)	내적통제소재(n=118)	t
우울 수준	14.65 (8.59)	10.19 (7.95)	4.164*

* $p<.05$

<표IV-10>에 의하면, 외적통제소재 집단에 속한 아동의 우울 수준(M=14.65, SD=8.59)이 내적통제소재 집단에 속한 아동의 우울 수준(M=10.19, SD=7.9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164, p<.05$). 즉 외적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아동이 내적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아동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6.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상관관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 소재 및 그리고 우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IV-11>과 같다.

<표IV-11>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상관관계

	적 극 적 대처행동	공 격 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 구 적 대처행동	통제소재	우 울
적 극 적 대처행동						
공 격 적 대처행동	-.077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161*	.12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367*	.143*	.175*			
통제소재	.340*	-.109*	.002	.103*		
우 울	-.041	.240*	.501*	.067	-.232*	

* $p < .05$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행동 및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통제소재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즉 내적통제소재자 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격적 대처행동과 통제소재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 점수가 낮을수록, 즉 외적통제소재자 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우울은 공격적 대처행동 및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 보다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의 우울 수준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우울을 더 잘 설명해준다. 또한 우울과 통제소재는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외적통제소재자가 우울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7. 대처행동과 통제소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가 아동의 우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4가지 하위 유형과 통제소재를 독립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IV-12>와 같다.

<표IV-12> 대처행동과 통제소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단 계	독립변인	R ² 변화량	F
우 울	1	소극/회피적 대처	.251	140.313*
	2	통 제 소 재	.054	91.691*
	3	공격적 대처	.023	67.898*
			R ² = .329	N = 420

MODEL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도
	B 계수	Beta		
상 수	10.660		2.931	.004*
소극/회피적 대처	1.422	.482	11.896	.000*
통 제 소 재	-.275	-.216	-5.339	.000*
공격적 대처	.357	.155	3.796	.000*

* $p < .05$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 설명력은 32.9%로 회귀모델을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본 결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R^2=.251$, $p<.05$)이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통제소재($R^2=.054$, $p<.05$), 그리고 공격적 대처행동($R^2=.023$, $p<.05$) 순으로 나타났다. 통제소재는 우울에 부적의 영향($\beta=-.216$)을 주고 있다. 통제소재 점수가 낮을수록, 즉 외적통제소재가 내적통제소재 보다 우울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설명력이 작아 제외되었다. 이는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인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과 아동이 지각하는 통제소재가 우울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우울 수준을 통해 효율적인 대처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확인을 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 중에서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격적 대처행동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박진아, 2001; 송달호, 2002, Achenbach, 1995; Endler & Paker, 1990; Olah, 1995; Seiffge-Krenke, 1991; Windle & Windle, 1996)들과 일치하며, 회피적 대처행동에는 성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Herman-Stahl et al., 1995; Kurdek, 1987)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여아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남아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는 문제에서 발생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거나 조절하고 또는 문제를 유보하거나 수용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많이 보임을 나타내준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으로 남자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학습되고, 공격적 행동을 남자답다고 여기며 묵인해준다. 반면 여자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성향을 학습하게 되고 감정적인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여자는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남자의 공격성이나 여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은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통제소재 점수를 상위 25%에 속하는 집단은 내적통제 집단으로,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은 외적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외적통제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외적통제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남자가 더 내적통제성을 지닌다는 연구(김영례, 1981; 송태욱, 1984; McGinnies et al., 1974; Parson, 1970)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이경남, 1999; 조현주, 1981)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외적통제 집단의 학년에 따른 차이와 내적통제 집단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령에 따라 내적통제가 증가한다는 연구(박선미, 1988; 조현주, 1981; Sherman, 1984)와 연령에 따라 외적통제가 증가했다는 연구(이경남, 1999),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내적통제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Gruen et al., 1974; Nowicki & Walker, 1974)와 모두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아동의 우울 수준은 성별 차이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을 더 경험한다는 일반적인 경향(신은영, 1998; 윤덕임, 1999; 정애현, 2001; Radloff & Rae, 1979)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울을 더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여자는 우울을 일으키는 환경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많고 또 선천적으로 가지는 수용성이나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서 더 우울을 느낀다는 주장과 남자는 인생을 통해 겪게 되는 변화와 과제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고, 나아가 이에 따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불안과 우울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5학년보다 6학년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6학년은 곧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나 교외 활동으로 인해 부담감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5학년 남아와 여아의 우울 수준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6학년 남아와 여아의 우울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미약하지만 약간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인 것은 앞서 제시된 연구 결과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외적통제성을 가지며, 내적통제집단보다 외적통제집단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았던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진로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남아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좀 더 신중한 해석을 위해 교사와 부모님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좀 더 유의미하게 나왔다. 학년에 따른 유의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동들이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영향을 받아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부수적으로 성장에 대한 압력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처행동의 4가지 하위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하위 유형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 명명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라 우울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의 우울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다. 즉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능동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대처행동이 수동적인 대처행동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김인향, 1997; 박경순, 1999; 박선영, 1993)와 회피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신은영, 1998)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 중심 대처가 우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회피, 기분전환, 지지추구 대처행동이 우울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정애현, 2001)도 보고 되었다.

셋째,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른 우울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외적통제집단에 속한 아동의 우울 수준이 내적통제집단에 속한 아동의 우울 수준 보다 높았다. 이것은 외적통제소재자들이 내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더욱 우울하고 심리적인 문제에 더욱 취약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송위덕, 1994; 이용남, 1999; 최윤희, 2003; Cole & Sapp, 1988; Johnson & Sarason, 1978)한다. 즉 우울과 내외 통제소재는 상관성이 있으며, 우울한 사람일수록 외적통제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내외통제소재가 우울과 같은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외적통제소재자들은 좌절을 느끼는 힘든 상황을

겪을 때, 그 상황이 자신의 행동 결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니며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우울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적통제소재자들이 자신의 행동 결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 스트레스 하위 유형과 통제 점수, 우울 점수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이 세 변인의 상호관련성의 본질은 명확하지 않다(Boekaerts, 1966)는 연구 결과가 제안 되었지만 각 변인들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통제소재는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 중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을,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내적 통제소재자 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외적통제소재자 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Folkman(1984)의 내적통제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외적통제소재를 가진 사람들 보다 더 직접적(접근적 대처 또는 문제 중심 대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고 발표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결과로 외적 통제소재보다는 내적통제소재가 회피적 대처행동과 관계된다고 한 연구 결과(Blanchard-Fields & Irion, 1998)도 보고 되었다.

우울은 공격적 대처행동 및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아동보다는 우울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우울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우울은 적극적 대처행동보다는 공격적 대처행동, 그리고 공격적 대처행동보다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더 관련이 크다. 또한 우울은 통제소재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외적통제소재자가 우울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우울은 외적통제성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한 연구(박경민, 1995; Moyal, 1977)와 우울과 내외 통제소재, 그리고 우울과 우울 원인 지각을 정상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우울 증후군과 내외 통제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이 있음을 밝힌 Calhoun, Cheney 및 Dawes(1974)의 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과 통제소재가 우울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방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공격적 대처행동 순으로 우울을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이 작아 유용한 변수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 대처행동을 할 때 우울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대처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되었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했을 때 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였을 때 우울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보다는 공격적 대처행동이 우울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아도 명백히 드러난다. 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아동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비록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나 스트레스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감정을 분출시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울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함

을 드러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은 당장에는 우울을 감소시키기에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격적 대처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부정적 효과가 다시 아동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검토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 한정된 지역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 모든 아동에게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피험자 선정을 요하며,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의 특성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성인으로까지 확대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연구에서, 대처행동과 통제소재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5학년과 6학년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기에 연령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별 효과와 더불어 학년에 따른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기 보고식 방법에 의한 측정 도구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즉 아동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측정된 자료로 인해 아동의 특성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효과적인 연구 결과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연구자와의 면담이나 선생님과 부모 평가와 같은 다각적인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는 개인 내적인 요소로써, 본 연구에서는 개인 외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인 요소와 함께 부모와의 관계, 주변 환경적 요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그리고 정서적 부적응은 서로 관련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이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본질은 명확하지 않다(Boekaers, 1996)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현재, 대처행동은 안정적인 성향적 특성이라는 증거가 있으며(Bolger & Zuckerman, 1995; Costa, Somerfield & McCrae, 1996; McCrae & Costa, 1996; Hewitt & Flett, 1996), 또한, Phares와 Chaplin(1997)에 의하면 통제소재는 안정적인 개인적 특성 차이로서 개념화되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대처행동과 통제소재의 안정성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문제를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변수라는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문제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요인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성격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검사의 개발을 통해 아동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서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생활태도와 심리적 적응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구(1995). 스트레스의 통제와 대처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육연구, 14, 29-44.
- 김연희(1998).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진(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이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민(1995). 아동의 우울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어머니 언어 통제 유형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순(1999).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우울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훈(1998). 초등학생의 불안 및 통제 소재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현(2003).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희(1995).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달호(2002).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실패내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종현(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통제소재 및 적대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애현(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7.
- 신종순(1996). 아동 스트레스와 성격, 학교 변인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43, 59-84.
- 오귀화(2002). 초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1996).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2), 43-51.
- 유현희(2001). 통제소재, 통증대처방식 및 우울이 통증평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덕임(1999).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 성향 및 대처 양식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화(1997). 아동의 우울 양상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자(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흥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1991). 청소년의 방어양식과 통제소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1999). 아동의 자기통제, 통제소재 및 행동문제의 관계.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7, 41-63.
- 이선주(1995). 특성 불안 및 통제 소재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 교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아(1993). 내외통제소재 및 가정환경 변인이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만 · 김민정(2001). 초등학생의 통제소재,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43, 83-96.
- 이용남(1999).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 수준에 따른 내-외 통제 및 우울대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진 · 서민정 · 정철호(2001). 아동 우울에 관련된 요인 및 부모 우울과의 관계 연구.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12(2), 245-255.
- 정동화(2002).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교육문제연구, 17, 135-153
- 정애현(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양식 및 우울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금옥(1996). 우울아동과 비 우울아동의 귀인양상, 자가지각, 그리고 타인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나원(2001). 아동의 우울과 애착 및 양육 태도와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우택(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명숙(2000).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 *광신논총*, 9(1), 386-425.
- Abramovitz, S. F. (1973). Internal external control and social-political activis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96.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47-253.
- Bar-Tal, D., & Bar-Zohr, Y. (1977).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ption in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 181-199.
- Bempord, J. R. (1982). Management of Childhood Depression : Developmental consideration. *Psychosomatics*. 23, 272-279.
-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Cohen, L. J., & Roth, S.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Cole, M., & Cole, S. (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2nd Eds.)*.

NEW YORK : Scientific American Books.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 and healthy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Eysenck, H. J. (1983). Stress disease and personality : The inoculation effect, in stress research, edited by Cary, L. Cooper, John Wiley, & Sons, Ltd.
- Findley, M. J., & Cooper, H. M. (1983).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2), 419-427.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 844-854.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college

-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Holahan, C. J., & Moos, R. H. (1986).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389-395.
- Journard, S. (1975). *Growing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 of Growth*. Allyn and Bacon, Inc.
- Kliew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 Relations to competence, A type behavior, monitor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89-697.
- Lazarus, R. S., & Cohen, J. B. (1977). Environmental Stress. In I. Altman & J. F. Wohlwill (Eds.), *Human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Plenum.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Merten, B. A., Lewinsohn, P. H., & Hopes, H. (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55-63.
- Moos, R. H., & Moos, B. S.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49-955.
- Nowicki, S., & Brisset, M. (1977). Internal Versus Externa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of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 Nowicki, S., & Strickland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1), 148-154.
- Parkes, K. R. (1984).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655-668.
- Parkes, K. R. (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 environmental factor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77-1292.
- Poznanski, E. O., Krahenbuhl, V., & Zrull, J. P. (1976). Childhood depression :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5, 491-50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y monograph : *General and applied*, 80, 609.
- Rotter, J. B. (1990).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American Psychologist*, 45(4), 489-493.
- Selye, H. (1984). *The stress of life*. revised edition. New York : McGraw Hill, Inc.
- Sorensen, E. L. (1990). Children's coping response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5(4), 259-267.
- Susan A. Meijer, Gerben Sinnema, Jan O. Bijstra, Gideon J. Mellenbergh, Wim H. G. Wolters (2002). Coping style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a chronic illn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4. 1453-1461.

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on

Mi-Jin, Lee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420 5th(male 85, female 91) and 6th(male 133, female 111) graders recrui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Kyung-ki region. Children's Coping Behavior Cscale on daily life stress', which was developed by Min, Ha-young, Yoo, An-jin(1998) and modified by Park, Jin-a(2001), was used to assess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Children' L

ocus of Control,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by Min, Ha-young(1998), and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Kovacs, 1977), which was revised by Shin, Eun-young(1998) were also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The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two-way ANOVA, one-way ANOVA, t-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Stepwis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the aggressive and passive/avoidant coping styles. For example, boys tend to use more aggressive coping styles than girls. On the other hand, the girls tend to use passive/avoidant coping style than boys.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erms of children's locus of control for depression. For example, the boys tended to use more external control than the girls.

Third, the severity children's depression was not affected by children's gender and their level of school grade.

Fourth, depression was dependent upon stress coping styles. For example, children who used a active coping style showed less depression than that of the children who applied the different coping skills. The children who used passive/avoidant coping style, experienced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at of children tried other stress coping styles.

Fifth, the external locus-control group showed more severe depression than that of the internal locus-control group.

Sixth, a active coping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styles were p

ositively correlated to the styles of locus of control. However, an aggressive coping style was negatively related to locus of control. Children who were depressed exhibited aggressive coping and passive/avoidant coping styles. On the other hand, the depressed children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locus of control.

Finally, it was demonstr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at a passive/avoidant coping style, a locus of control, and an aggressive coping style were useful variables to predict children' depress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childhood depression can be persistent until adulthood if not treated,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children's mental wellbeing by identifying the causal variables for children's depression such as stress-coping styles and locus of control.

부 록

1.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 척도
2. 아동의 통제 소재 척도
3. 아동의 우울 척도

질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의 질문지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골라 ○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알 수 없으며, 오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혹시, 단어의 뜻을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 연구실

지도교수 채 규 만

석사과정 연구원 이 미 진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스트레스란..어떤 상황이나 일 때문에 화나거나, 신경질나거나, 두렵거나 또는 슬프거나
속상함을 느낄 때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2	혼자 조용히 운다.	1	2	3	4
3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놀려 주거나 욕해준다.	1	2	3	4
4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	2	3	4
6	좋아하는 강아지나 인형, 사진 같은 것을 보면서 속상하거나 슬픈 내 마음을 이야기 한다.	1	2	3	4
7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때려 준다.	1	2	3	4
8	전화 상담을 하거나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1	2	3	4
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1	2	3	4
10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는 죽는 것을 생각해 본다.	1	2	3	4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 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1	2	3	4
12	친한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도움을 구한다.	1	2	3	4
13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배울 점을 찾아본다.	1	2	3	4
14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한다.	1	2	3	4
15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진다.	1	2	3	4
16	부모님께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1	2	3	4
17	문제가 생긴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1	2	3	4
18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잊으려고 애쓴다.	1	2	3	4
19	친구나 가족에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든 사람을 욕하거나 좋지 않게 얘기한다.	1	2	3	4
20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1	2	3	4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에 ○표 해주세요 ☆

내 용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1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1	2	3	4
2	노래나 그림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우선 선생님이 나를 귀여워하거나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	2	3	4
3	숙제 검사에서 좋은 평가나 칭찬을 받는 것은 내가 숙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1	2	3	4
4	무슨 일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1	2	3	4
5	친구가 내 말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쉬운 일이다.	1	2	3	4
6	나쁜 일이 생기려면 내가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일어나게 마련이다.	1	2	3	4
7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1	2	3	4
8	나와 같지 않은 친구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은 대체로 어렵다.	1	2	3	4
9	어떤 운동이건 연습을 충분히 하면 나도 잘 할 수 있다.	1	2	3	4
10	만약,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1	2	3	4

내 용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11	친구들이 내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다.	1	2	3	4
12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13	반에서 인기 있으려면 우선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거나 좋아해야 한다.	1	2	3	4
14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이다.	1	2	3	4
15	내 친구 중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 친구의 마음을 바꿀 방법은 거의 없다.	1	2	3	4
16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1	2	3	4
17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있다.	1	2	3	4
18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공을 잡으려는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다.	1	2	3	4
19	가족끼리 무슨 결정을 할 때면,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20	나는 자주 억울하게 야단맞거나 벌을 받는 것 같다.	1	2	3	4

☆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 2주 동안의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 해주세요 ☆

내 용		그렇지 않다	가끔씩 그렇다	많이 그렇다
1	나는 슬프다.	0	1	2
2	나는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0	1	2
3	나는 모든 일을 망친다.	0	1	2
4	나는 어떤 일도 재미가 없다.	0	1	2
5	나는 나쁘다.	0	1	2
6	나에게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0	1	2
7	나 자신이 밉다.	0	1	2
8	잘못된 일은 거의 내 탓이다.	0	1	2
9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0	1	2
10	나는 매일 울고 싶다.	0	1	2
11	나는 언제나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괴롭다.	0	1	2
12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0	1	2

내 용		그렇지 않다	가끔씩 그렇다	많이 그렇다
13	어떤 일에 대해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다.	0	1	2
14	나는 학교 공부에 얽매어 헤어날 수 없다.	0	1	2
15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힘이 든다.	0	1	2
16	나는 피곤하다.	0	1	2
17	어떤 음식이나 먹기 싫고, 별로 맛을 못 느끼겠다.	0	1	2
18	나는 아픈 곳 때문에 걱정이 된다.	0	1	2
19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0	1	2
20	학교생활에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0	1	2
21	나와 정말 친한 친구는 하나도 없다.	0	1	2
22	전에 잘했던 과목을 지금은 매우 못한다.	0	1	2
23	나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0	1	2
24	나는 남이 말한 것을 잘 듣지 않는다.	0	1	2
25	나는 남과 잘 싸운다.	0	1	2